

00:10

■ 사건 직후 / 조사 개시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며 【부호】가 외친다.

“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지개의 눈동자’는 무사한 건가!?  
혹시라도 흠집이라도 생겼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야!  
이봐! 【감정사】!  
지금 당장 손상 여부를 감정할 수 있겠나!?”

【감정사】는 이 사태에 겁을 먹은 듯  
온몸을 떨며 대답한다.

“아, 알겠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수리실이 있었죠?  
그곳이라면 장비도 갖춰져 있고 정밀 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실 입구에는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도둑의 공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호】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무지개의 눈동자’를 【감정사】에게 건넨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경찰 두 명과 함께 수리실로 향한다.

특별 훌에 남은 것은 너희 팔공탐정사무소 일원들 뿐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다.

지금, 너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괴도는 정말로 죽은 것인가?  
‘무지개의 눈동자’는 과연 무사한가?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우선 눈에 띄는 곳부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자.

(이 PDF를 닫고, 「진행」 버튼을 눌러 주세요.)